

전두환 총으로...윤석열 법으로...내란 정권의 '광주 지우기'

尹 정권, 'ACC 힘빼기' 작전 펼쳤다

亞문화중심도시조성위 '고사' 시도
대통령 → 총리 소속 '위상' 낮추고
'꼼수 법안' 은밀히 국무회의 의결
아특사업 동력 원천 차단 시도까지
국회 계류 법안 즉각 철회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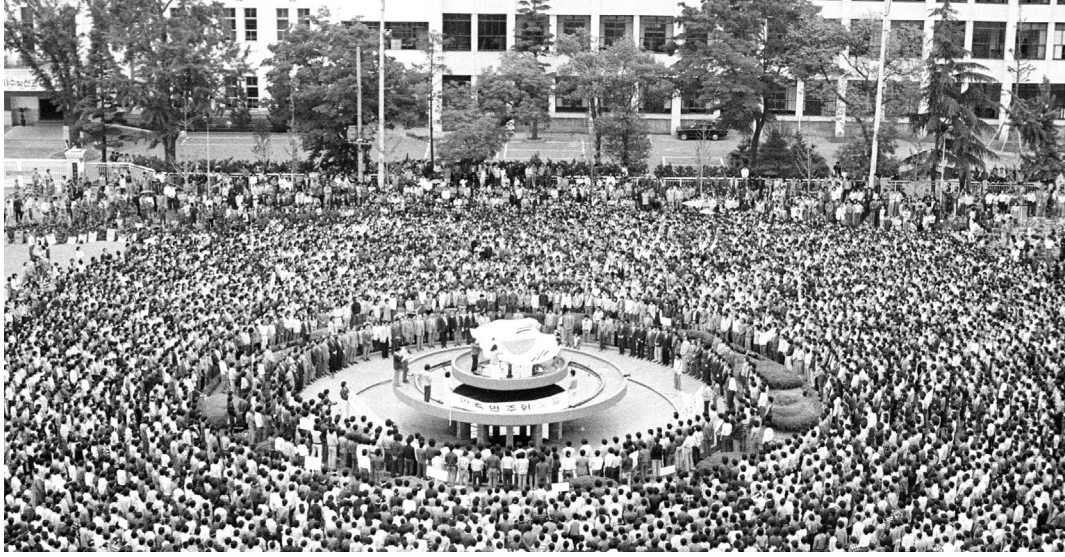
내란 주범인 윤석열 정권에서 '광주 지우기'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힘 빼기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전 정권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아특사업)의 심장인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구성을 3년 넘게 미루며 고사(枯死) 작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계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지난해 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은밀히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2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성위의 소속을 대통령령에서 국무총리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올해 2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내란 사태가 종식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기에 통과된 이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이다.



전두환이 '총칼'로 광주를 유린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격하하려는 '법'을 악용해 국책사업을 고사시키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광주 지우기'를 답습했다는 지적이다. 1980년 5월 15일 전남도청 앞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구름처럼 운집한 모습(왼쪽)과 정부의 '힘 빼기' 시도 속에 놓인 현재의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5·18민주광장 분수대 전경.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문제의 핵심은 전 정부가 '위원회 정비'라는 명목으로 내세워 광주 아특사업의 동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점이다.

현행 아특법 제29조는 조성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가 얹혀 있는 거대 국책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다. 국책사업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축소 방침을 내세우며 조성위를 타깃으로 삼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포기하지 않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예고(2024년 8월 1일~9월 9일)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숙전숙결로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현행 대통령 소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

조성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될 경우 발생할 폐해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잃고, 힘없는 행정 실무기구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 확보 전쟁에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할 명분과 힘을 잃게 된다. 아특사업은 단순한 문화 시설 운영이 아니라 도시 계획, 관광, 산업이 융복합된 거대 프로젝트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 수준으로는 각 부처 장관들을 통할하며 사업을 밀고 나갈 추진력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제8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 현재까지 9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9월 위원을 추천했음에도 현 정부조차 묵묵부답이다.

위원회를 열지 않아 기능을 마비시킨 뒤, "운영 실적이 저조하니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



기 위한 고의적 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아특사업은 문체부의 일개 지방 사업으로 쪼그라들 것이며, 대통령이 약속했던 투자 지원이나 국가적 특례 조항들도 사문화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 정권에서 시도된 격하 움직임은 조성사업에 대한 폄훼 의도가 명백했다"며 "현 정부 들어서도 조성위가 구성되지 않는 것은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전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 정부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조성사업을 정책 우선순위에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는 이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계류'는 언제든 여야 합의라는 명목하에 기습 처리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

지금이라도 국회, 특히 광주를 정치적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광주 고립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정쩡한 태도로 시간만 끌다가는 내란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에 말려들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정부가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다. 국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의안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호남을 포용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생각하고 내란 종식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단추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다.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 처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성위가 총리 소속으로 내려가는 순간, 아특사업은 문체부의 일개 지방 사업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며 대통령이 약속했던 3조원 투입이나 국가적 지원 특례 조항들도 사문화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회 728조 예산안 처리...AI 관련 지원 등 일부 감액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 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내년 예산안 중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남이 않도록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꼬리표를 붙이면서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원안에서 감액되지 않는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본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

예산부수법안 중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에 최대 10cm...“첫 눈이 온다구요”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10cm의 첫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부터 4일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고 2일 밝혔다.

전남 북부 서해안에는 3~8cm,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1~3cm, 많게는 시간당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남 북부를 제외한 서해안 지역에는 1~5cm, 광주·전남북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눈이 비로 내릴 경우 강수량은 전남서해안 5mm 안팎, 광주·전남북부 5mm 안팎으로 예보됐다.

다만 기상청은 북서풍과 육지에서 해상으로 불어오는 바람(육풍)이 수렴하는 위치에 따라 강수량과 적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온도 떨어져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되며,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2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예보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http://kimchigwangju.co.kr

NAVER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

2025. 11. 28. 금 ~ 12. 14. 월 광주김치타운

현장버무림과 현장수령 11/28 금 ~ 12/14 월 택배 11/18 화 ~ 12/19 금

매일이 김장! 매일이 감동!

주최 주관 광주광역시 | 광주김치축제위원회 문의 062.676.3601